

울산 지역 대학생의 패스트푸드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김 혜 경

울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1996년 2월 4일 접수)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in Ulsan

Hyekyung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Natural Science, University of Ulsan
(Received February 4, 1996)

Abstract

Food consumption patterns are predictors of nutritional status at all age levels and vary among and between different age groups. This study was designed to assess food habits and fast food eating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in Ulsan area through questionnaires. Data from 330 useable forms was analyzed for percent differences, frequency of consumption,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test and chi square methods were utilized). Food habit score of female stud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of male students. The reason for using fast food chain was 'convenience' or 'good taste'. The most preferred food by subjects was noodle or dumpling and least preferred food was pizza. In general, they had a higher satisfaction scores in taste and service of fast food and lower scores in amount and price of it. From this results it appears there is a need for developing domestic brand fast food to lower the price of fast food and giving the nutrition education for proper food selections and eating patterns.

I. 서 론

우리의 식생활 양식은 오랫동안 지켜 온 식습관과 새로운 생활양식이 서로 융합됨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식생활은 경제 사회적 구조, 시대의 소득수준, 식량정책, 산업기술과 식습관 등에 의해 생성되어지는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계속되는 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개인의 소득수준이 증대되었으며, 생활수준을 향상시켰고, 국제화에 따른 외국 문화의 유입으로 우리 사회의 환경, 생활양식이 크게 발달되었다¹⁻³⁾.

핵가족화와 독신자 가족의 증대 등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해⁴⁾ 점점 외식의 기회가 증대되고, 음식물 또한 한국 것 뿐 아니라 외국의 것들을 접할 기회가 커지게 되어 일상식이 국제화 및 외식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외식산업의 다양한 발전을 보이게 되었다⁵⁻⁷⁾.

외식이란 가정에서 먹는 것 외에 밖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며, 패스트푸드란 외식 산업의 한 부분으로

고객이 주문하면 곧바로 음식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신속성에서 기인된 말로서 음식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조직적인 경영기법인 프랜차이즈 시스템(franchising system)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본부에서 식품구매, 음식의 생산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운영 방침을 개발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여 제품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고, 표준시설을 설비해 주는 체인 시스템으로 관리운영 전반의 규격화, 시스템화, 매뉴얼화에 의한 표준화를 실현하는 경영기법이다. 이러한 경영기법을 도입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음식의 질(quality), 고객에게 친절한 서비스(service), 청결한 점포 환경(cleanliness)을 강조함으로써 같은 체인점이면 어디서나 똑같은 맛과 서비스, 점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이는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먹기 간편하고, 싸고, 빠르게 음식을 제공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쾌적하고, 깨끗한 점포 분위기와 색다른 맛으로 인해 그 이용도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⁸⁻¹¹⁾.

우리나라 패스트푸드 산업은 1979년 롯데리아 개점을 시작으로 생활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1980년대에

패스트푸드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여 1982년에 이후에는 외국의 유명상표와 기술제휴한 업체가 크게 늘어났으며, 서구형 패스트푸드의 진출 러시 현상에 못지않게 한식 국수를 국내 보급형 패스트푸드로 면류체인점이 생겨났으며, 프라이드 치킨점 및 피자점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12,13)}. 패스트푸드점의 수도 1985년 1000여개, 1988년에는 약 1300여개가 생겼고,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로서⁶⁾, 앞에서 언급한 메뉴 이외에 도너츠,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한 메뉴를 갖추게 됨에 따라 선택의 폭과 이용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었다.

패스트푸드점은 거의가 서양 음식을 메뉴로 하고 간편성을 위주로 하여 운영되므로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번창하고 있는데¹¹⁾, 모 등의 연구¹⁴⁾에 의하면 패스트푸드 이용자의 85%가 14~30세의 젊은 연령층에 속한다고 하며, 한의 연구⁷⁾에서는 서울지역 대학생의 패스트푸드점 이용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이용자의 연령과 패스트푸드점의 이용을 볼 때 우리 국민 식생활과 전통 식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¹⁵⁾.

식습관(food habit)은 인간이 후천적으로 형성해 온 생활양식으로, 신체적 발육 뿐만 아니라 정서 및 심리적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¹⁶⁾, 대학생의 식습관은 과거세대의 식습관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성인기에 습관화 될 식습관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17,18)}. 학생들은 제한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로 쌀 전분성 음식이나, 간단히 음료수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식사를 거르고 잦은 간식의 이용, 옹지 못한 영양식으로 식품을 선택하는 것 등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량한 식습관으로 입증된 바 있다¹⁹⁾. 여대생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²⁰⁻²³⁾,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지나친 체중조절과 불규칙적인 식습관은 빈혈 등과 같은 건강장애를 낳기도 한다. 또한 평소에는 소량 또는 정상적인 양을 먹다가도 어떤 기회에 의해 과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대학생들 사이에 이런 식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²⁴⁾.

한편 선진국의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국내 진출은 외식산업의 근대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막대한 자금력과 우수한 경영능력으로 외식시장을 잠식하여 우리나라의 영세한 생업형 음식점을 위협하고 있으며²⁵⁾, 뒤늦게 생겨난 국내 브랜드 패스트푸드점은 경영자의 경험미숙, 영세성 그리고 소비자의 인식부족과 시장성장 미비 등의 제반 문제로 인해 한국의 외식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6,27)}. 이러한 시

점에서 패스트푸드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패스트푸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울산 지역에서 행해진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세계 중 한끼는 외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패스트푸드의 접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울산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패스트푸드에 대한 소비형태와 패스트푸드가 우리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바람직한 패스트푸드의 이용과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 지역인 울산에 있는 울산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1995년 5월에서 6월까지 한 달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 330부중 분석가능한 312부(94.5%)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방법으로는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각 조사원들이 조사대상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자들이 설명하여 조사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내용으로는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사항과 체위, 식습관, 패스트푸드 이용실태에 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1) 일반사항

일반사항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나이, 키, 몸무게, 한달 용돈, 거주 형태, 건강상태 등을 포함시켰다.

2) 식습관

식습관 조사에는 식사의 규칙성, 결식의 여부와 이유, 간식과 편식, 음주, 흡연의 정도를 포함시켰다. 일본 후생성의 10분항으로 이루어진 조사표를 이용하여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식습관을 조사하였다(0~2일 : 0점, 3~4일 : 0.5점, 5~7일 : 1점)

3) 패스트푸드의 이용실태

패스트푸드의 이용실태 조사에는 패스트푸드점 이용 빈도와 선호하는 패스트푸드의 종류와 선호하는 이유,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목적과 시간, 패스트푸드점 이용 시 1회 비용, 패스트푸드의 지방 함량,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시키고 패스트푸드에 대한 가격, 맛, 서비스, 질, 양, 위생에 대한 만족도는 표를 이용하여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는 다섯단계로 나누어 해당하는 곳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외 외국 브랜드 패스트푸드점과 국내 브랜드 패스트푸드점의 이용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의견과 전통 음식의 패스트푸드화에 대한 의견을 포함시켰다.

3. 통계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을 사용하여 전산처리를 하였다. 통계처리방법은 각항목에 대한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변수간의 유의성 검증은 T-test와 χ^2 -test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연령, 신장, 체중 및 BMI 분포는 표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남학생 21.6세, 여학생은 20.0세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20세 이하가 166명(53.1%)으로 가장 많으며, 21~24세가 124명(39.7%), 25세 이상이 22명(7.1%)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평균 신장은 173.3 cm, 평균체중은 64.3 kg이고, 여학생의 평균신장은 162.4 cm, 평균체중은 51.7 kg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대한 한국인 표준 신장과 체중³⁰⁾을 비교하였을 때, 남자의 경우 표준신장과 체중은 172.6

cm, 66.4 kg이고, 여자의 경우 표준신장과 체중은 159.4 cm, 53.3 kg으로 조사대상자의 신장이 표준신장보다 약간 크고, 조사대상자의 체중은 표준체중에 약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비만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BMI를 적용한 결과 평균 BMI는 남자의 경우 21.4, 여자의 경우 19.6으로 나타나 한국인 표준 BMI³⁰⁾ 남자 22.3, 여자 21.0과 비교할 때 남녀 모두 낮게 나타났다. BMI를 상대적인 비만정도에 따라 협장군(20 미만), 정상군(20~24 이하), 비만군(25 이상)인 세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협장군은 남학생 36명(11.5%), 여학생 97(31.1%), 정상군은 남학생 112명(35.9%), 여학생 59명(18.9%)로 나타났으며, 비만군은 남학생에서 8명(2.6%)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거주형태, 한달용돈, 건강상태 자각정도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거주형태는 자택이 246명(78.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자취 51명(15.3%), 기숙사 10명(3.2%), 하숙 5명(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택외에 하숙, 기숙사, 자취를 하는 것은 남학생이 많아 성별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01$). 한달용돈 수준은 남녀 모두 10만원에서 15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자각정도는 '약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다'로 나누었을 때 남학생 74명(23.7%), 여학생 96명(30.8%)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보통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1) N(%)

	남	여	전체
연령			
20세 이하	69(22.1)	97(31.1)	166(53.2)
21~24세	65(20.8)	59(18.9)	124(39.7)
25세 이상	22(7.1)	0(0.0)	22(7.1)
신장			
151~160 cm	1(0.3)	66(21.2)	67(21.5)
161~170 cm	50(16.0)	88(28.2)	138(44.2)
171~180 cm	98(31.4)	2(0.6)	100(32.0)
181 cm 이상	7(2.2)	0(0.0)	7(2.2)
체중			
50 kg 이하	1(0.3)	73(23.4)	74(23.7)
51~70 kg 미만	125(40.1)	83(26.6)	208(66.7)
70 kg 이상	30(9.6)	0(0.0)	30(9.6)
BMI			
20 미만	36(11.5)	97(31.1)	133(33.6)
20~24 이하	112(35.9)	59(18.9)	171(54.8)
25 이상	8(2.6)	0(0.0)	8(2.6)
계	156(50.0)	156(50.0)	312(100.0)

2. 식습관 실태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상태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식사의 규칙성에서는 전체 312명 중 104명(62.2%)이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29.8%, 여학생이 32.4%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는 90년도의 이 등³¹⁾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식을보다 낮은 것이다. 결식횟수는 남학생 55명(17.6%)과 여학생 72명(23.1%), 모두 127명이 일주일에 5회 이상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식 끼니로는 남녀 모두 아침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저녁, 점심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식이유로서는 '시간이 없어서'가 95명(30.4%), '귀찮아서'가 47명(15.1%)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식사를 거르는 때가 아침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사실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조사대상자가 학생이므로 등교준비에 바쁜 아침시간을 보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학생의 경우 '살을 빼기 위하여 식사를 거른다'고 11명(3.5%)이 응답하였다. 조사대상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2)

N(%)

	남	여	전체	비고
거주형태				
자택	106(34.0)	140(44.9)	246(78.9)	$\chi^2=24.74$ DF=3 $p<0.001$
하숙	5(1.6)	0(0.0)	5(1.6)	
기숙사	9(2.8)	1(0.3)	10(3.1)	
자취	36(11.5)	15(4.8)	51(16.3)	
한달용돈				
10만원 미만	17(5.4)	27(8.7)	44(14.1)	$\chi^2=7.68$ DF=4 NS
10~15만원 미만	46(14.7)	55(17.6)	101(32.3)	
15~20만원 미만	43(13.8)	43(13.8)	86(27.6)	
20~30만원 미만	35(11.2)	23(7.4)	58(18.6)	
30만원 이상	15(4.8)	8(2.6)	23(7.4)	
건강상태 자각정도				
약한 편이다	14(4.5)	6(1.9)	20(6.4)	$\chi^2=7.65$ DF=2 $p<0.05$
보통이다	74(23.7)	96(30.8)	170(54.5)	
건강하다	68(21.8)	54(17.3)	122(39.1)	
계	156(50.0)	156(50.0)	312(100.0)	

표 3. 식습관 실태

N(%)

	남	여	전체	비고
식사의 규칙성				$\chi^2=0.87$
규칙적이다	63(20.2)	55(17.6)	118(37.8)	DF=1
불규칙적이다	93(29.8)	101(32.4)	194(62.2)	NS
결식 횟수				
안한다	63(20.2)	54(17.3)	119(37.5)	$\chi^2=3.95$ DF=3 $p<0.05$
1~2회/주	3(1.0)	2(0.6)	5(1.6)	
3~4회/주	35(11.2)	28(9.0)	63(20.2)	
5회 이상/주	55(17.6)	72(23.1)	127(40.7)	
식사를 거르는 끼니				
없다	63(20.2)	54(17.3)	119(37.5)	$\chi^2=3.93$ DF=3 NS
아침	76(24.4)	76(24.4)	152(48.8)	
점심	9(2.9)	9(2.9)	18(5.8)	
저녁	8(2.6)	17(5.4)	25(8.0)	
식사를 거르는 이유				
거르지 않는다	63(20.2)	54(17.3)	119(37.5)	$\chi^2=16.03$ DF=6 $p<0.05$
시간이 없어서	46(4.7)	49(15.7)	95(30.4)	
귀찮아서	24(7.7)	23(7.4)	47(15.1)	
돈이 없어서	8(2.6)	3(1.0)	11(3.6)	
배가 고프지 않아서	10(3.2)	14(4.5)	24(7.7)	
살을 빼기 위해	0(0.0)	11(3.5)	11(3.5)	
기타	5(1.6)	2(0.6)	7(2.2)	
간식여부				
한다	103(33.0)	137(43.9)	40(76.9)	DF=1
안한다	53(17.0)	19(6.1)	72(23.1)	$p<0.001$

표 3. 계속

	남	여	전체	비고
편식여부				$\chi^2=4.11$
한다	45(14.4)	62(20.0)	107(34.4)	DF=1
안한다	111(35.6)	94(30.1)	205(65.7)	$p<0.05$
음주				
하지 않는다	19(6.1)	29(9.3)	48(15.4)	
월 1~2회	63(20.2)	82(26.3)	145(46.5)	$\chi^2=17.47$
주 1~2회	51(16.3)	40(12.8)	91(29.1)	DF=3
주 3회 이상	23(7.4)	5(1.6)	28(9.0)	$p<0.001$
흡연				
안 피운다	77(24.7)	152(48.8)	229(73.5)	
하루 반갑 미만	26(8.3)	2(0.6)	28(8.9)	$\chi^2=93.20$
하루 반갑~한갑 미만	40(12.8)	0(0.0)	40(12.8)	DF=3
하루 한갑 이상	13(4.2)	2(0.6)	15(4.8)	$p<0.001$
계	156(50.0)	156(50.0)	312(100.0)	

표 4.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점수분포 N(%)

식습관 점수	남	여	전체
3점 이하	46(14.7)	37(11.9)	83(26.6)
4점~6점 이하	86(27.6)	87(27.9)	173(55.5)
7점 이상	24(7.7)	32(10.3)	56(18.0)
계	156(50.0)	156(50.0)	312(100.0)

자중 남학생 103명(33.0%), 여학생 137명(43.9%)이 하루 세끼 정규식사 외에 간식을 한다고 응답하여 간식을 하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식여부에서는 남녀 모두 '안한다'가 각각 111명(35.6%), 94명(30.1%)으로 나타나 편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편식을 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음주횟수는 월 1~2회가 남학생 63명(20.2%), 여학생 82명(26.3%)으로 가장 많았으며, 흡연여부에서는 남녀학생 모두 '안 피운다'가 각각 77명(24.7%), 152명(48.8%)으로 가장 많았고, 남학생의 경우는 하루 반갑에서 한갑 미만, 하루 반갑 미만, 하루 한갑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습관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일본후생성의 식습관 조사표를 적용한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4.36점이었고, 식습관 점수를 성별에 따라 검정한 결과 남학생이 4.14 점, 여학생이 4.59점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를 점수군으로 분류해 보면 불량군(3점 이하), 정상군(4~6 점 이하), 양호군(7점 이상)의 세군으로 나눌 수 있으며 표 4와 같다.

3. 패스트푸드 이용실태

표 5는 패스트푸드점 이용빈도, 이용시간, 이용시 1회 비용을 나타냈다. 패스트푸드점 이용빈도는 남학생의 경우 '거의 가지 않는다'가 69명(22.1%)으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의 경우는 월 2~3회가 가장 많아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시간은 전체 응답자 중 170명(54.5%)이 '아무 때나'라고 가장 많이 대답하였으며, 다음으로 118명(37.9%)이 '오후간식'이라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의 경우는 '아무 때나'가 104명(33.3%), 여학생의 경우는 '오후간식'이 71명(22.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패스트푸드점 이용시 1회 비용은 2000~3000원 미만이 108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목적은 '먹기 위해'(59.3%), '만남을 위해'(15.4%), '휴식을 위해'(11.5%), '빈 시간 처리를 위해'(5.4%)의 순으로 나타나서 서울지역의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만남을 위하여가 53%로 높게 나타난 점과 비교하면 지역적인 차이를 볼 수 있다.

패스트푸드점을 선호하는 이유와 선호하는 음식종류와 음식 선택기준은 표 6과 같다. 패스트푸드점을 선호하는 이유는 남학생의 경우 '간편하다'(35.3%),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25.3%), '맛있다'(17.4%), '시간이 절약된다'(16.0%)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간편하다'(39.4%), '맛있다'(27.9%),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25.0%), '시간이 절약된다'(18.9%), '친구와 어울릴 수 있다'(18.9%)의 순으로 나타나 남녀학생 모두에게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특징인 간편성이

표 5. 패스트 푸드 이용실태(1)

N(%)

	남	여	전체	비고
패스트푸드점 이용빈도				
거의 가지 않는다	69(22.1)	29(9.3)	98(31.4)	
월 1회 이하	20(6.4)	12(3.8)	32(10.2)	$\chi^2=33.94$
월 2~3회	28(9.0)	46(14.7)	74(23.7)	DF=4
주 1회	25(8.0)	32(10.3)	57(18.3)	$p<0.0001$
주 2회 이상	14(4.5)	37(11.9)	51(16.4)	
패스트푸드점 가는 시간				
식사시간	5(1.6)	18(5.8)	23(7.4)	
오전간식	0(0.0)	1(0.3)	1(0.3)	$\chi^2=21.72$
오후간식	47(15.1)	71(22.8)	118(37.9)	DF=3
아무때나	104(33.3)	66(21.2)	170(54.5)	$p<0.0001$
패스트푸드점 이용시 1회 비용				
1000원 미만	18(5.8)	11(3.5)	29(9.3)	
1000~2000원 미만	45(14.4)	38(12.2)	83(26.6)	$\chi^2=5.91$
2000~3000원 미만	45(14.4)	63(20.2)	108(34.6)	DF=4
3000~4000원 미만	25(8.0)	26(8.3)	51(16.3)	NS
4000원 이상	23(7.4)	18(5.8)	41(13.1)	
계	156(50.0)	156(50.0)	312(100.0)	

가장 큰 선호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맛있다'라는 항목에서는 여학생(27.9%)이 남학생(17.4%)보다 많이 응답하여 여학생의 경우 패스트푸드점을 선호하는 이유 중 맛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 반면 '영양이 풍부하다'라는 항목에서는 남녀학생 모두 한 명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¹¹⁾와 모 등¹²⁾의 연구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선호하는 패스트 푸드는 남학생이 면·만두류(22.1%)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아이스크림(11.9%), 햄버거(10.3%), 치킨(9.3%), 피자(3.2%)의 순을 보였으며, 여학생은 아이스크림(17.9%), 면·만두류(16.0%), 햄버거(11.9%), 치킨(9.3%), 피자(9.3%)의 순으로 나타나 면·만두류($p<0.05$), 아이스크림($p<0.05$), 피자($p<0.01$)에서 남녀간의 유의성을 보였다.

이 결과는 한¹¹⁾의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패스트 푸드의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햄버거와 치킨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음식선택기준은 남녀 모두 '기호에 따라'(77.2%) 선택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가격에 따라'(12.9%), '동행인과 같은 것'(8.0%), '양에 따라'(4.5%), '영양을 고려'(0.9%)의 순을 보여, 남녀 학생 모두 영양은 고려하지 않고 음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기호를 고려하였고, 남학생은 여

학생보다 더 동행인과 같은 것을 선택하였다.

표 7에는 선호하는 주음식, 선호하는 스낵류, 선호하는 음료류를 나타냈다.

선호하는 주음식에서 남학생은 면·만두류(19.6%), 고기 햄버거(14.4%), 치킨(10.6%), 피자(5.4%), 샌드위치(4.8%)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면·만두류(11.2%), 고기햄버거(10.6%), 피자(8.3%), 치킨 햄버거(7.7%), 치킨(6.7%)로 나타나 남학생(10.6%)이 여학생(6.7%)보다 치킨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면·만두류는 여학생(11.2%)보다 남학생(19.6%)이 더 많이 좋아한다고 대답하여 남녀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p<0.01$), 휘시버거의 경우는 여학생(5.4%)이 남학생(1.0%)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1$). 치킨 햄버거의 경우는 여학생(7.7%)이 남학생(3.5%)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5$), 다른 항목에서는 남녀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선호하는 스낵류에서는 후렌치 후라이(39.7%)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핫도그(32.1%)로 두 항목이 스낵류중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후렌치 후라이의 경우는 여학생(26.0%)이 남학생(13.8%)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핫도그는 남학생(20.8%)이 여학생(11.2%)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항목

표 6. 이용실태(2)

	N(%)		
	남	여	전체
패스트푸드점을 선호하는 이유			
간편하다	110 (35.3)	123 (39.4)	233 (74.7)
시간이 절약된다	50 (16.0)	59 (18.9)	109 (34.9)
가격의 폭이 다양하다	25 (8.0)	26 (8.3)	51 (16.3)
맛있다	54 (17.4)	87 (27.9)***	141 (45.2)
위생적이다	4 (1.3)	7 (2.2)	11 (3.5)
영양이 풍부하다	0 (0.0)	0 (0.0)	0 (0.0)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79 (25.3)	78 (25.0)	157 (50.3)
친구와 어울릴 수 있다	24 (7.7)	59 (18.9)***	83 (26.6)
선호하는 패스트푸드			
햄버거	32 (10.3)	37 (11.9)	69 (22.1)
치킨	29 (9.3)	29 (9.3)	58 (18.6)
면·만두류	69 (22.1)	50 (16.0)***	119 (38.1)
피자	10 (3.2)	29 (9.3)**	39 (12.5)
아이스크림	37 (11.9)	56 (17.9)*	93 (29.8)
음식 선택 기준			
가격에 따라	103 (33.0)	138 (44.2)***	241 (77.2)
가격에 따라	26 (8.3)	14 (4.5)	40 (12.9)
양에 따라	11 (3.5)	3 (1.0)	14 (4.5)
영양을 고려	2 (0.6)	1 (0.3)	3 (0.9)
동행인과 같은 것	20 (6.4)	5 (1.6)**	25 (8.0)
기타	3 (1.0)	1 (0.3)	4 (1.3)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7. 이용실태(3)

	N(%)		
	남	여	전체
선호하는 주음식			
고기햄버거	45 (14.4)	33 (10.6)	78 (25.0)
치즈버거	8 (2.6)	12 (3.8)	20 (6.4)
치킨햄버거	11 (3.5)	24 (7.7)*	35 (11.2)
튀시버거	3 (1.0)	17 (5.4)**	20 (6.4)
피자	17 (5.4)	26 (8.3)	43 (13.8)
치킨	33 (10.6)	21 (6.7)	54 (17.3)
스파게티	2 (0.6)	5 (1.6)	7 (2.2)
도넛	2 (0.6)	5 (1.6)	7 (2.2)
샌드위치	15 (4.8)	12 (3.8)	27 (8.7)
면·만두류	61 (19.6)	35 (11.2)**	96 (30.8)
선호하는 스낵류			
후렌치 후라이	43 (13.8)	81 (26.0)***	124 (39.7)
핫도그	65 (20.8)	35 (11.2)***	100 (32.1)
비스켓	29 (9.3)	28 (9.0)	57 (18.3)
치킨 너깃	16 (5.1)	9 (2.9)	25 (8.0)
파이	8 (2.6)	5 (1.6)	13 (4.2)
어니언 링	2 (0.6)	9 (2.9)	11 (3.5)
선호하는 음료류			
탄산음료(콜라등)	89 (28.5)	85 (27.2)	174 (55.7)
커피	19 (6.1)	21 (6.7)	40 (12.8)
우유	21 (6.7)	16 (5.1)	37 (11.8)
쥬스류	19 (6.1)	17 (5.4)	36 (11.5)
코코아	1 (0.3)	0 (0.0)	1 (0.3)
아이스크림	12 (3.8)	18 (5.8)	30 (9.6)
쉐이크	38 (12.2)	37 (11.9)	75 (24.1)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8. 패스트푸드에 대한 의견

N(%)

	남	여	전체	비고
식사로서의 충분도				$\chi^2=45.30$
충분하다	39(12.5)	98(31.4)	137(43.9)	DF=1
아니다	117(37.5)	58(18.6)	175(56.1)	$p<0.001$
지방함량				$\chi^2=27.47$
많다	113(36.2)	147(47.1)	260(83.3)	DF=2
적당하다	36(11.5)	6(1.9)	42(13.4)	$p<0.001$
적다	7(2.2)	3(1.0)	10(3.2)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입맛이 서구화되었다	83(26.6)	77(24.7)	160(51.3)	$\chi^2=5.38$
외식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10(3.2)	12(3.8)	22(7.0)	DF=3
짤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2(0.6)	3(1.0)	5(1.6)	NS
지방의 섭취가 증가하게 되었다	41(13.1)	68(21.8)	109(34.9)	

모두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선호하는 음료류는 남학생의 경우 탄산음료(28.5%), 셰이크(12.2%), 우유(6.7%), 커피(6.1%), 주스류(6.1%) 등의 순이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탄산음료(27.2%), 셰이크(11.9%), 커피(6.7%), 아이스크림(5.8%), 주스류(5.4%) 등의 순으로 남학생(6.7%)이 여학생(5.1%)보다 우유를 더 선호하고, 여학생(5.8%)이 남학생(3.8%)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은 패스트푸드점 이용자가 느끼는 패스트푸드의 식사로서의 충분도, 패스트푸드의 지방함량, 패스트푸드가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식사로서의 충분도는 '충분하지 않다'(56.1%)가 '충분하다'(43.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충분하다'(31.4%)가 '충분하지 않다'(18.6%)보다 많았고, 남학생의 경우는 '충분하지 않다'(37.5%)가 '충분하다'(12.5%)보다 많아서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01$).

패스트푸드의 지방함량은 '많다', '적당하다', '적다'의 3분항으로 나누어 질문했을 때 '많다'(83.3%)라는 응답이 남학생(36.2%)과 여학생(47.1%)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적당하다'(13.4%), '적다'(3.2%)의 순을 보여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방함량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패스트푸드가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은 '입맛이 서구화되었다'(51.3%)가 가장 많았고 '지방의 섭취가 증가하게 되었다'(34.9%), '외식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7.0%), '짤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1.6%)의 순으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의 섭취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항목에서는 여학생

표 9. 패스트푸드에 대한 만족도*

	남	여
만족도		
가격	2.71±0.66	2.90±0.45**
맛	3.37±0.66	3.54±0.54**
서어비스	3.22±0.75	3.06±0.67*
질	2.98±0.66	2.82±0.54*
양	2.54±0.75	2.96±0.66***
위생	3.16±0.87	2.70±0.70***

*1=매우 안 좋다, 2=안 좋다, 3=보통이다, 4=좋다, 5=매우 좋다.

* $p<0.05$, ** $p<0.01$, *** $p<0.001$

(21.8%)이 남학생(13.1%)보다 많이 응답하여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대학생의 패스트푸드의 가격, 맛, 서어비스, 질, 양, 위생에 대한 만족도를 성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은 표 9와 같다. 가격, 맛, 양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만족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어비스, 질, 위생면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만족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면에서는 여학생 2.90, 남학생 2.71, 맛에 대해서는 여학생 3.54, 남학생 3.37($p<0.01$), 양에서는 여학생 2.96, 남학생 2.54($p<0.001$)로 나타났다. 서어비스면에서는 남학생 3.06, 여학생 3.22, 질에 대해서는 남학생 2.98, 여학생 2.82($p<0.05$), 위생면에서는 남학생 3.16, 여학생 2.70($p<0.001$)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맛과 서어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양과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전항목에서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

표 10.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견해

N(%)

	남	여	전체	비고
외국브랜드 패스트푸드점 이용에 대하여				
가지 말아야 한다	13(4.2)	12(3.8)	25(8.0)	
되도록 삼가해야 한다	80(25.6)	103(33.0)	183(58.6)	$\chi^2=7.59$
그만한 가치가 있다	25(8.0)	16(5.1)	41(13.1)	DF=3
생각해 본적이 없다	38(12.2)	25(8.0)	63(20.2)	NS
국내브랜드 패스트푸드점 이용에 대하여				
이용할 생각이 있다	110(35.3)	125(40.1)	235(75.4)	$\chi^2=4.18$
이용할 생각이 없다	8(2.6)	7(2.2)	15(4.8)	DF=2
모르겠다	38(12.2)	24(7.7)	62(19.9)	NS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에 대하여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79(25.3)	77(24.7)	156(50.0)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22(7.1)	14(4.5)	36(11.5)	$\chi^2=5.35$
바람직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	43(13.8)	58(18.6)	101(32.4)	DF=3
기타	12(3.8)	7(2.2)	19(6.1)	NS
계	156(50.0)	156(50.0)	321(100.0)	

NS: not significant

였다. 이는 류와 곽⁸⁾의 국내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 조사에서 나타나는 양과 가격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일치한다.

표 10에서는 외국 브랜드 패스트푸드점 이용에 대한 견해와 국내 패스트푸드점 이용에 대한 견해,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에 대한 견해를 나타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막대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는 외국브랜드 패스트푸드 업체가 대부분인 실정인데, 이러한 외국 브랜드 패스트푸드점의 이용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58.6%가 '되도록 삼가해야 한다', 20.2%가 '생각해 본적이 없다', 13.1%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 8.0%가 '가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응답하였고 남녀간의 유의성은 없었다. 한¹¹⁾의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의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는 '조금씩 삼가해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 '맛과 질적인 면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별 생각이 없다'의 순으로 나타나 본 조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모 등¹²⁾의 연구결과와는 비슷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국내 브랜드 패스트푸드점 이용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75.4%가 '이용할 생각이 있다' 라고 응답하여 로얄티 지급이 필요없는 국내브랜드 패스트푸드 업체의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화에 대한 생각에서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50.0%), '바람직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 (32.4%),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11.5%)로 나타났다. 모 등¹³⁾의 연구결과에서는 '바람직하다'

(43.6%), '보통이다' (38.9%), '부정적이다' (17.5%)의 순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본 조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통음식을 패스트푸드화 한다면 어떤 품목이 적당하겠는 가하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식혜·수정과(108명)와 같은 전통음료가 가장 많았으며, 떡(100명), 전류(68명), 과자류(52명), 국·탕(24명), 밥(2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소수 응답으로는 김치, 술, 죽, 차, 누룽지 등이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울산지역의 남녀 대학생 312명(남자 156명, 여자 156명)을 대상으로 패스트푸드에 대한 소비형태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62.2%가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였으며, 여학생이 더 불규칙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적인 식습관 점수는 남학생이 4.14점, 여학생이 4.59점으로 나타나 성별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2. 패스트푸드점 이용빈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시간은 '아무 때나'가 54.5%로서 식사와는 무관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이유로서는 '간편하다'가 74.7%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와 '맛이 있다'로 나타났다.

3. 선호하는 패스트푸드는 남학생의 경우 면·만두류,

아이스크림, 햄버거, 치킨, 피자, 여학생의 경우 아이스크림, 면·만두류, 햄버거, 치킨, 피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선택 기준은 '기호에 따라', '가격에 따라', '동행인과 같은 것', '양에 따라', '영양을 고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패스트푸드의 식사로서의 충분도에서는 남학생은 '충분하지 않다'가 37.5%, 여학생은 '충분하다'가 31.4%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충분하지 못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의 지방함량에 대한 생각에서는 '많다'가 83.3%로 가장 높았고, 패스트푸드가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은 '입맛이 서구화 되었다', '지방의 섭취가 증가하게 되었다', '외식을 더 좋아 하게 되었다', '편 것 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5. 패스트푸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맛과 서어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양과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가격, 맛, 양에 대해서 더 만족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 서어비스, 질, 위생 면에서 더 만족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전항목에서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6. 외국 브랜드 패스트푸드점 이용에 대한 견해는 '가지 말아야 된다'와 '되도록 삼가해야 한다'가 66.6%로 나타났으며, 국내 브랜드 패스트푸드점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할 생각이 있다'가 75.4%로 높게 나타나서 우리 식생활에 맞는 패스트푸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결식의 이유로서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과 패스트푸드점 이용 목적이 대부분 간편성과 신속성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점의 이용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패스트푸드의 가격과 양에 대한 만족도가 맛, 서어비스와 위생에 대한 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외국 브랜드 패스트푸드점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로열티 지불이 필요없는 국내 패스트푸드점이 증가한다면 가격과 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푸드 중 면·만두류를 가장 선호하는 점과 지방 함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점,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이유 중 '영양이 풍부해서'가 가장 적게 나타난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내 브랜드 패스트푸드점의 증가와 패스트푸드 기업체에서 우리 입맛에 맞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패스트푸드화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패스트푸드 선택시 영양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게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 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1. 이기열. 한국인 식생활 100년(1880~1980). 연세 농촌, p. 297, 1990.
2. 이기열, 문수재, 손경희, 이양자, 윤선, 광동경. 한국인의 식생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음식문화연구원 논문집 2: 565-570, 1988.
3. 이철호, 주용재, 안기욱, 류시생. 지난 1세기 동안의 한국인 식습관의 변화와 보건 영양 상태의 추이 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3(4): 397-401, 1988.
4.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식생활과 건강, p. 11, 1993.
5. 모수미. 외식산업이 국민 영양 및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 영양학회지 19: 120-128, 1986.
6. 김창임, 모수미, 이삼열, 윤은영, 최경숙. 패스트푸드의 외식 행동에 관한 실태 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1(3): 295-309, 1986.
7. 김미향. 도시 주부의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인식 및 소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3): 69-78, 1988.
8. 류은순, 광동경. 국내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 조사-제 1보; 햄버거 체인점을 중심으로. 한국식문화학회지 4(3): 229-236, 1989.
9. 류은순, 광동경. 패스트푸드업체의 급식 관리 구조 개선을 위한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5(4): 455-462, 1990.
10. 안창근. 국내 외식 산업의 현황과 전망. 식품공업 82: 17-22, 1985.
11. 한명주. 서울 지역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의 외식 행동에 관한 실태 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7(2): 91-96, 1992.
12. 광동경. 패스트푸드 업체의 급식 경영 실태 및 발전 방향. 한국식문화학회지 9(2): 189-207, 1994.
13. 모수미, 전미연, 백수경, 이수경. 패스트푸드의 외식 행동에 관한 2차 실태 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4: 83-94, 1989.
14. 전미연, 김복임, 이경신, 모수미. 패스트푸드식당 이용자의 식사 행동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2): 15-28, 1990.
15. 광동경. Fast foods의 영양에 관한 소비자 및 업체의 의식구조 조사와 영양적 균형에 관한 연구. 한국음식문화연구 논문집 3: 237-242, 1992.
16. 김기남. 식습관과 성격적 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5: 194-199, 1982.
17. 정영진. 대학생의 음식기호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7: 10-19, 1984.
18. Driskell, J.A., Keith, R.E. and Tangeny, C.C. Nutritional status of white college students in virginia. J. Am. Diet. Assoc. 74: 32-41, 1979.
19. Jakobovits, C., Halstead, P., Kelly, L., Roe, D.A. and Young, C.M. Eating habits and nutrient intakes of college women over a thirty-year period. J. Am. Diet. Assoc. 71: 405-412, 1977.

20. 유영상. 대학생들의 점심섭취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 165-174, 1981.
21. 임현숙. 일부 지역 여대생의 식생활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18**: 47-56, 1980.
22. 이방자. 일부 도시지역 여자 대학생의 영양섭취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6**: 51-60, 1978.
23. 정영진, 이정원, 김미리. 대학식당의 식단의 특성과 운영 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5**: 107-117, 1982.
24. Zuckerman, M.D., Colby, A., Ware, C.N. and Lazer-son, S.J. The prevalence of bulimia among college students. *Am. J. Public Health* **76**: 1135-1146, 1986.
25. 손일락. 미래의 식당경영. 형설출판사, 1993.
26. 김현희. 외식서비스산업. 한국마케팅연구소, 1990.
27. 양한민. 외식산업의 과학적 경영(식당경영을 중심으로). 외식산업 경영학술 세미나, 중앙대학교 산업교육원, 1993.
28. 김초영, 남순란, 박동경. Fast foods의 이용실태조사 및 영양 밀도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남녀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식문화학회지 **5**(3): 361-369, 1990.
29. 심경희, 김성애. 도시 청소년들의 패스트푸드의 이용 실태 및 의식구조. 한국영양학회지 **26**(6): 804-811, 1993.
30. 윤태영, 최중명, 박순영, 이종미. 한국인의 체위 기준치. 한국영양학회 추계심포지움, 1994.
31. 이명숙, 이현영, 최경숙. 대학생 식생활 형태에 관한 조사 연구 -울산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1990.